

이재명 “정부, 레고랜드 사태 ‘무능·무책임·무대책’”

민주당 최고위...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감사원·검·경도 수사 안 해” “자본시장, 제2 IMF 우려로 전전긍긍...민주당 할 수 있는 역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대응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지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며 “경찰,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판악에 이재명의 경기가 어디 지금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금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며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를 거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또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았다”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 터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한다”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제안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특히 자금시장은 심하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재수 “‘이재명 퇴진’ 김해영 발언 부적절”

라디오 방송 출연... “지금은 단일대오로 뭉쳐야 할 시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거론한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과 관련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상대방(여권)이 정치적으로는 내전 상태를 선언해 지금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좀 실망스럽다”고 밝히, 친이재명계로부터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의 퇴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지금은 쓴소리보다는 단일대오로 뭉쳐야 할 시간이나”는 진형자의 물음엔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정치는 칼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것”이라며 “그런 논의는 당내에 일절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전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대통령께서 만들었다”며 “헌정사에서 자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연합뉴스

“尹 정부, 야당 탄압 멈추고 민생 파탄·경제 무능 책임져라”

민주당, 국회서 규탄대회... “독재 일삼는 정부 맞서 이제 행동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고 대외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이 총집결(민주당 추산 1200명)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본다. 가려진 촛불을 들고 그 강력에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느냐”라며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검찰 본색 이빨을 드러냈다”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부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

”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발언 중간마다 ‘당사 침탈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 외면 경제 무능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며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될 때”라며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서 협의회

北 핵·미사일 대응 등 논의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26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엔디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3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에 대응한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최근 안보협력 복원과 함께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강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3국 차관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서면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하고, 회담에 참석한 이들은 핵무기와 관련한 러시아의 무책임한 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3국 차관은 또한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설명한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